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안 된다”

영광군, 한수원 설명회 불참... 시민단체, 원안위에 반대 서명 제출 한수원, 주기적 안전성 평가 연장 움직임... 윤 정부, 10년 연장 계획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은 한빛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개최한 공무원 설명회에 불참했고 시민단체들은 수명연장 반대 서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명회’가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열렸지만 영광군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설명회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설명회에서 한빛원전과 인접해 있는 전남과 전북의 40개 읍면 공무원들을 불러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안내했다.

영광군 공무원도 20여명 참석대상자였지만 모두 불참했다. 주민 동의 없이 원전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불참의 이유로 알려졌다. 또 한빛 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한빛핵발전

소대음호남권공동행동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등은 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수명연장 절차와 일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의견수렴’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6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를 제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한빛 1·2호기는 각 1986년,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문을 닫는 것으로 설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한빛 1·2호기는 폐로를 앞두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10년씩 연장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일방적으로 핵

발전소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방사성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없고 2030년 포화가 임박한 한빛핵발전소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이미 결정해 놓고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이는 요식적인 절차를 통해 마치 주민 수용성을 얻은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1만 4392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 원안위에 제출해 광주·전남지역 시민들의 뜻을 알렸다.

오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교육홍보팀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2호기 사고 역시 40년 가까이 노후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오래된 핵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확보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명연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약 원전 관련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영광 뿐 아니라 광주를 비롯해 인접 사·군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는 수명연장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건강한 노후 활력소 ‘동구 백세대학’ 개강

어르신 250명 대상... 11월까지 문화·건강 등 분야별 강좌



어르신들이 최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동구 백세대학’ 개강식에서 건강 체조를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100세 세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동구 백세대학’이 개강했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활력소가 될 ‘동구 백세대학’을 개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백세대학은 분야별(문화·건강·경제·생활 등) 전문 강자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이웃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식에서는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이 감사로 나서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다. 또 오현숙 행복한 노후설계 연구소 소장 이 건강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백세대학은 이후 ▲노년기 사회 적응(9월 15

일) ▲노후 경제관리(9월 22일) ▲교통안전 교육(10월 13일) ▲노년기 문화 활동(10월 20일) ▲황혼기 인생 설계(11월 3일) 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올해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분야별 백세대학을 운영하고, 전 강좌 수료생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낀다”면서 “동구 백세대학 어르신들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전문 강의를 짜임새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iyou@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영광예술의전당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제공)

광주 서구, ‘찾아가는 치매관리교실’ 운영

‘기억톡톡’, ‘헤아림 가족교실’ 등

광주시 서구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구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치매안심마을인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기억톡톡’ 컴퓨터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로 운영된다.

‘기억톡톡’ 컴퓨터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경증치매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지 및 뇌를 자극하는 원예, 음악놀이, 근력 증진을 위한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치매환자 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돌보는 지혜, 치매진단 및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사진회상을 통해 환자와 옛 기억 되짚어보기, 이야기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서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활력과 생기가 생기고,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iyou@kwangju.co.kr

인공증식 멸종위기 참달팽이, 신안 하태도 원서식지에 방사

지난해 홍도 방사 이후 두 번째

신안군은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참달팽이(Koreanohadra koreana·사진) 20마리를 지난달 31일 신안군 하태도 원서식지에서 방사했다.

참달팽이는 흑산면 홍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명에 ‘코리아’가 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달팽이다. 이번 방사가 진행된 하태도는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에 속하고,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은 2021년 하태도에서 추가로 도입해 인공 증식한 참달팽이 개체수는 총

30마리에 달한다. 이 중 건강한 증식체(매각길이 약 1.5~2cm) 20마리를 선별해 하태도에 두 번째 자연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

방사와 함께 신안군은 하태도 주민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참달팽이의 기본정보 및 유사종과 구별할 수 있도록 비교 그림 등을 사진이 실린 참달팽이 소책자를 배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행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인공 증식된 참달팽이 개체의 자연 방사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참달팽이 방사



를 계기로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달팽이 서식지 보호 유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캠페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4회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계기로 깨끗한 하늘을 만드는데 동참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채택된 최초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 세계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지정됐다.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시와 공동으로 7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공원 앞 사거리에서 출근시간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20대와 지하철 내부

모니터를 통해 푸른하늘의 날 기념 동영상을 송출하고 카드뉴스와 모션그래픽을 영산강유역환경청 누리집과 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푸른 하늘과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 홍보로 푸른 하늘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